

스코핑 고찰 방법을 통한 산욕기 산모 건강관리에 대한 연구동향 분석

이도은¹, 박한송², 진준수², 민백기³, 윤인애³, 서효원^{4,5}, 서주희^{1*}

¹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 ²국립중앙의료원 한방내과, ³국립중앙의료원 침구과, ⁴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⁵강동경희대학교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Analysis of Research Trends on Postpartum-women Healthcare : A Scoping Review

Do-Eun Lee¹, Han-Song Park², Joon-Soo Jin², Beak-Ki Min³, In-Ae Youn³, Hyo-Weon Suh⁴,
Joo-Hee Seo¹

¹Department of Korean Neuropsychiatry, National Medical Center

²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of Korean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³Department of Acupuncture and Moxibustion Medicine, National Medical Center

⁴College of Korean Medicine, Kyung Hee University

⁵Department of Neuropsychiatry, Kyung Hee University Korean Medicine Hospital at Gangdong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coping review is to describe the research trends of postpartum healthcare for postpartum women, as well as to identify further direction for research in the area of postpartum healthcare.

Methods: This study was conducted sequentially according to the Scoping Review Method referred to as 'frameworks of Arskey and O'Malley'. We searched for articles published as of May 15th, 2020 in seven Korean databases in order to obtain the data. A key term search strategy was employed, including terms such as "Postpartum period care", "Postpartum health", "Postpartum care", and "Postpartum status" to identify relevant studies.

Results: Eighty-three articles were selected from a total of 259. The research has been undertaken steadily since 1997,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Nursing and Korean medicine. In terms of study design, survey studies were the majority (48.2%), followed by interventions and experimental papers (32.5%). However, qualitative research areas are lacking. The research topics were largely divided into two categories: postpartum care characteristics and postpartum care interventions. The characteristics of postpartum care were highly connected with care for mental health. Among the postpartum care interventions, the most common employed was Korean medicine intervention.

Conclusion: This study confirms that management of mental health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is necessary.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identify the experiences of postpartum women and the effectiveness of a postpartum care intervention program through the utilization of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In particular, such research is needed in the field of Korean medicine.

Key Words : Postpartum period, Postpartum women, Postnatal care, Postpartum programs, Korean medicine.

• Received : 4 August 2020

• Revised : 14 August 2020

• Accepted : 14 August 2020

• 이 논문은 2020년도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연구연구소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사업임 (과제번호: NMC2020-PR-02)

• Correspondence to : 서주희

(04564) 서울시 중구 을지로 245 국립중앙의료원 별관 1층 한방진료부 한방신경정신과

Tel : +82-2-2260-7447, Fax : +82-2-2260-7464, E-mail : sejoohhee@nmc.or.kr

서론

산욕기는 산모의 신체 회복과 모성으로의 역할 변화 등 신체와 심리의 재통합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로, 분만 후 첫 6주를 의미한다.¹⁾ 이러한 산욕기에 이루어지는 산후관리는 임신과 분만으로 인한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로부터 산모의 건강을 회복하는 동시에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위해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²⁾

한국에서는 독특한 산후관리 방식과 관련된 문화적 질병으로 ‘산후풍’이라는 개념이 있다.³⁾

산후풍(産後風)은 출산이나 유산 후에 조섭(調攝)을 제대로 하지 못하여 얻은 각종 증상 집합군들을 총합하는 한의학적 명칭이다. 크게 동통 관련 증상, 전신 증상, 정신신경계 증상의 3가지 계통의 증상으로 분류해볼 수 있다.⁴⁾

고위험 임신부일수록 산후풍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경향을 보이지만⁵⁾ 모든 임신부가 임신 기간 동안 1회 이상의 산전 진찰을 받는 등 산전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은 것과 대조적으로 산후관리에 대한 적극적 대처는 미비한 실정으로,²⁾ 산후관리에 대해서는 비교적 한의학 분야에서 집중적으로 치료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에 미 충족 서비스 분야에 대한 공공사업의 요구도가 높아짐에 따라 최근 한방 산후 건강관리 프로그램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전북 익산시, 제주특별자치도도를 비롯한 경북 영주시, 전남 순천시, 전남 담양군 등의 지방자치단체와 지방한 의사협회가 주축이 되어 출산모 한약지원사업을 진행한바 있고, 점점 확대되는 추세이다.⁶⁾ 그러나 현재까지 한방 산후건강관리사업의 대부분은 한약 지원에 국한되어 있어 산모들의 실제적인 요구와 필요에 따른 다양하고 적극적인 형태의 지원사업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산욕기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연구 동향은 어떠한가, 추후 필요한 연구 방향과 실질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영역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이것들을 바탕으로 추후 한의약 산후건강관리사업에 활용하고자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자 한다.

문헌고찰 방법 중 스코핑 고찰(Scoping review)을 활용하여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요약된 결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연구 현황을 파악할 뿐 아니라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영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추후 산후 건강관리에 관한 연구, 서비스, 정책 방향을 세우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연구방법

1. 스코핑 고찰(Scoping review)의 개괄

스코핑 고찰 방법은 탐구하고자 하는 연구 영역에서 관련 개념의 연구경향과 의미 있는 연구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서 다양한 유형의 연구를 모두 포함시키며 해당 영역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과 이용 가능한 근거의 주요 자원 및 그 유형을 빠르게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포괄적이고 폭넓은 선택 기준을 가지기 때문에 대상 연구에 대한 엄격한 질 평가 과정은 거치지 않으나 2인 이상의 연구자가 분석 대상 연구의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을 적용하여 적합한 대상 연구를 선정하도록 하며, 최종 분석 대상 연구를 선택할 때 모든 원문을 확보하여 읽을 것을 강조하고 논문의 초록만을 읽고 결정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요구한다. 본 저자들은 Arskey와 O'Malley의 framework에서 제시한 5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7,8)}

2. 1단계: 연구 질문 설정 (Identifying the Research Question)

스코핑 고찰에서는 폭 넓은 범위에 대한 이해를 도출하기 위해 광범위한 접근의 연구 질문을 설정할 것을 추천 한다.⁷⁾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후 산모의 건강과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의 동향은 어떠한가’

이를 통하여 추후 필요한 연구 방향과 실질적인 도움이 요구되는 산후건강관리 영역은 무엇인가?’를 연구 질문으로 설정하였다.

3. 2단계: 관련 연구 확인 (Identifying Relevant Studies)

스코핑 고찰에서 적합한 연구를 확인할 때에는 가능한 한 포괄적이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5월 15일까지 국내에 출판된 논문을 대상으로 ‘산욕기 관리’, ‘산후 건강’, ‘산후 관리’, ‘산후 조리’를 검색 키워드로 설정하고 KISS, RISS, DBpia,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KOREA SCIENCE를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여 관련 연구를 검색하였고, 검색된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보며 직접 추가할 논문을 검색하는 방법을 포함하였다.

4. 3단계: 연구 선택 (Study Selection)

연구 선택 과정 단계에서 첫 번째로 주제와 관련성 있는 연구의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스크리닝하는 작업을 거쳤고, 두 번째로 추려진 논문을 원문을 확보하여 읽고 배제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 선택 과정에서 본 연구자들은 선정 기준과 배제 기준을 토의 및 합의하여 결정하였으며 기준에 따라 연구를 선택하였다. 본문을 확보한 215편 중 최소한의 연구의 질을 보장하고 연구 질문에 적합한 답을 얻기 위해 국내 연구 중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출판된 연구를 분석 대상 연구에 포함시키기로 하였다. 검토 시 선정된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선정 기준:

- 1) 국내 산욕기 산모들의 건강관리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논문
 - (1) 검색 데이터베이스: KISS, RISS, DBpia, 국가과학기술정보센터(NDSL), 한국학술지인용

색인(KCI), 한국의학논문데이터베이스(KMBASE), KOREA SCIENCE

- (2) 검색 키워드: ‘산욕기 관리’, ‘산후 건강’, ‘산후 관리’, ‘산후 조리’
- 2) 국내에서 출산을 경험한 산모 대상의 연구 (단, 문헌고찰, 방법론적 연구는 예외)

배제 기준:

- 1) 국내 산욕기 산모들의 건강관리가 중심 주제가 아닌 논문
 - (1) 양육 주제 연구
 - (2) 산후에 대한 문화 및 역사 연구
- 2) 국내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 외의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
- 3) 국내에서 출산을 경험한 산모 대상이 아닌 연구
 - (1) 국외에서 출산을 경험한 산모 대상의 연구
 - (2) 출산하지 않은 임신 중인 임부 대상의 연구
 - (3) 신생아 대상의 연구
 - (4) 산모 남편에 관련된 연구

5. 4단계: 데이터 기록(Charting the Data)

자료 검색 및 정리에 서지정리 프로그램인 Zotero software를 활용하고 Microsoft Excel을 사용하여 출판연도, 연구 목적, 연구 대상, 연구 방법, 연구의 주요 결과 등을 포함하여 기록하였다. 3인(LDE, PHS, SJH)의 연구자가 검토 및 의견 교환을 통해 분석에 임했으며 토론 후 일치되는 사항을 기록하였다.

6. 5단계: 분석, 요약과 결과보고(Collating, Summarizing and Reporting Results)

스코핑 고찰은 분석한 모든 자료의 개괄을 추구하고 결과적으로 자료가 얼마나 잘 표현될 수 있는가를 중요하게 여긴다.^{7,8)} 이에 본 연구자들은 스코핑 고찰의 방법을 충실히 따라 연구의 결과를 분석하고 요약하여 합의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본 연구 결과를 개괄할 수 있는 내용과 분석된 항목에 대한 논문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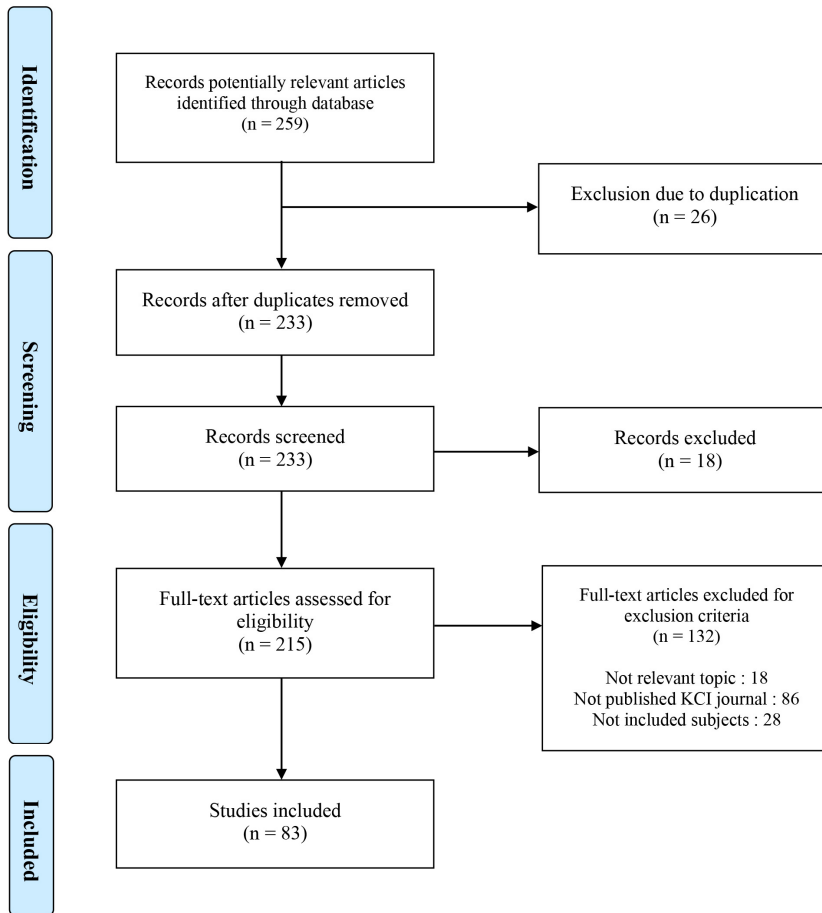


Fig. 1. PRISMA chart. It presents the process for study selection.

의 수 등을 포함하여 표로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1. 관련 연구 검색 결과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욕기 관리’, ‘산후 건강’, ‘산후 관리’, ‘산후 조리’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였을 때 관련성 있는 연구로 총 259편의 연구를 확인하였고 이중 중복인 26편의 연구를 제외하였다.

이후 233편의 연구에서 제목과 초록을 확인하여

산욕기 산모들의 건강관리와 관련이 없는 논문 18편을 제외하고 215편의 본문을 확보하였다.

이후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132편의 논문을 제외하여 최종적으로 83편의 논문을 분석 대상 연구로 선택하였다. (Figure 1)

2. 연구의 전반적 동향

1) 출판연도

산후 산모의 건강을 다룬 연구를 발표 연도별로 분석한 결과, 1997년 가정간호학회지에서 1편 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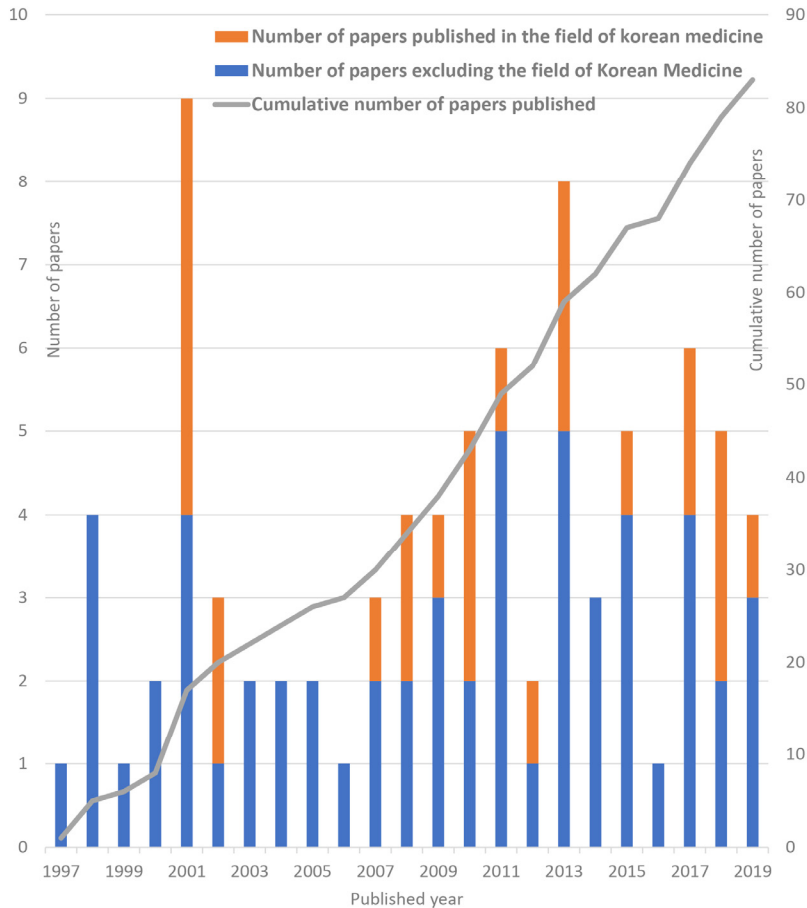


Fig. 2. Number of postpartum healthcare research by published year.

한 것을 시작으로 1998년에는 4편, 2001년에는 9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이후 2006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이다가 2010년에 5편, 2011년에 6편, 2013년에는 8편으로 증가하였다. 누적된 출판 수로 출판 연도에 따른 추세를 볼 때 매해 1편 이상 출간되어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한의학 분야에서는 2001년에 5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고 2013, 2018년도에 3편으로 다음으로 많이 발표되었다. (Figure 2)

2) 학술 분야

각 논문의 학술 분야는 대상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의 성격을 기반으로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에 분류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대분야와 중분야로 구분하였을 때 총 5개의 대분야, 10개의 중분야 영역으로 나눌 수 있었다. 대분야에서는 의약학이 76편으로 가장 많았고 중분야에서는 간호학 43편(51.8%), 한의학 26편(31.4%), 예방의학 6편(7.2%)순으로 가장 많았다. 대분야의 복합학, 농수해양학, 공학, 예술체육학에서는 모두 3편 이

하의 적은 수의 연구가 발표되었다. (Table 1)

3) 연구 대상

선정 및 배제 기준에 따라 문헌고찰 및 방법론적 연구를 제외하면 연구 대상은 모두 산모였으며 출산 주수, 합병증 유무 등 추가 기준이 제시된 경우에 대해 분류하여 살펴보았다.

출산 주수를 명시한 논문은 37편(44.6%)으로 분만 6개월 이내의 산모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30편(36.1%)으로 대부분이었으며 그 중 분만 1주 이내 산모를 대상으로 모집한 경우가 9편(10.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2주 이내, 4주 이내가 각각 4편(4.8%)이었고, 4-6주 이내, 8주 이내는 각각 3편(3.6%), 6-10주 이내로는 1편이 있었다. 3개월 또는 100일 이내, 6개월 이내는 각각 3편(3.6%)이었으며 그 외에 7편은 분만 후 2년 이내, 5년 이내, 10년 이내 등 장기간으로 대상을 모집한 연구들이었다.

초산모 또는 경산모를 기준으로 명시한 연구는 14편(16.9%)으로 경산모 2편(2.4%) 외에 12편(14.5%)의 논문은 모두 초산모를 대상으로 하였다.

산모에 합병증과 건강 문제없음을 명시한 논문은 35편(42.2%), 신생아에 합병증, 건강 문제없음을 명시한 논문은 30편(36.1%)이 있었다.

한편, 연구 대상자들을 모집한 지리적 위치에 따라 분류하였을 때 지역을 명시한 논문은 43편(51.8%)이

었다. 43편의 논문 중에서 두 개 이상의 지역을 명시한 곳은 7편이었으며 출처가 되는 지역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나온 지명을 각각 횡수에 포함하였으며 전체 횡수는 52회이다. 분석 결과 서울과 경기도가 각각 8회이며 인천, 충청북도 및 전라남도 광주가 각각 3회이었다. 16편의 논문은 이니셜로 암호화하여 지역을 알 수 없었다.

연구 대상을 모집한 장소로 살펴보면 12편은 모집 장소를 기재하지 않았거나 장소가 없는 연구였으며, 나머지 71편 중 8편은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대상을 모집한 경우였다. 모집된 장소의 분포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명시된 장소를 각각 횡수에 포함하여 살펴보았을 때 전체 횡수는 83회였다. 38회가 병원 또는 산부인과 의원이었으며 한방병원이 18회로 다음으로 많았다. 산후조리원이 11회, 보건소와 한방 산후조리원이 4회로 뒤이어 있었으며 그 외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모유수유 관리실, 이주여성을 위한 한국어교실, 조산소 등이 있었다. 인터넷에서 모집대상을 구하는 논문 1편도 있었다. 연구 대상에 대한 특성을 하나의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2)

4) 연구 설계

어떤 연구 설계 방법을 따랐는지 논문 본문에 기재되어 있는 것을 데이터화하고 명확하게 기재가 되

Table 1. Academic Field of Postpartum Healthcare Research

Top category (n=83)	Subcategory	Count(%)
Medicine and Pharmacy(76)	Nursing Science	43 (51.8%)
	Korean medicine	26 (31.4%)
	Preventive medicine	6 (7.2%)
	Obstetrics and gynecology	1 (1.2%)
Interdisciplinary Studies(3)	Interdisciplinary Research	2 (2.4%)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 (1.2%)
Marine Agriculture, Fishery(1)	Food Science	1 (1.2%)
Engineering(2)	Engineering in general	1 (1.2%)
	Electrical engineering	1 (1.2%)
Arts and Kinesiology(1)	Beauty	1 (1.2%)

지 않은 부분은 Zaza et al⁹⁾가 사용한 연구 설계 모식도(Study design Algorithm)를 참고하였다.

83편 중 40편(48.2%)의 연구가 조사연구로 그 중

27편(32.5%)이 관련 변수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서술적 조사연구였으며 12편(14.5%)은 상관관계 조사연구, 1편(1.2%)은 탐색적 조사연구였다. 개입이 포함

Table 2. Characteristics of Study Population

Category	Characteristics	Count	
Postpartum period (n=37)	Within 1 weeks	9	
	Within 2 weeks	4	
	Within 4 weeks	4	
	Within 4-6 weeks	3	
	Within 8 weeks	3	
	Within 3 months	3	
	Within 6 months	3	
	Etc.*	8	
Delivery experience (n=14)	Primipara	12	
	Multipara	2	
Postpartum Women Condition	No Complications/ No health problems	35	
Infant Condition	No Complications/ No health problems	30	
Geographic region (n=52) [†]	Seoul	8	
	Gyeonggi-do	8	
	Incheon	3	
	Gangwon-do	1	
	Chungcheongbuk-do	3	
	Chungcheongnam-do	1	
	Jeollabuk-do	Jeonju	2
	Jeollanam-do	Gwangju	3
	Gyeongsangbuk-do	Andong	1
		Unknown	1
		Gimhae	1
	Gyeongsangnam-do	Busan	2
		unknown	1
	Jeju		1
Unspecific		16	
Allocated location (n=83) [‡]	Hospital or Clinic	38	
	Breast-feeding management facility	2	
	Postpartum care center	11	
	Public Health center	4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	3	
	Korean medicine Hospital	18	
	Korean medicine Postpartum care center	4	
	Korean language classes for immigrant women	1	
	Midwifery center	1	
	Internet	1	

*One paper is 6 to 10 weeks and four papers is within 2 years, two papers is within 5 years, one paper is 6 weeks to 10 years.

[†]This is total number of region. Total number of research is 43 papers. Multiple region were included.

[‡]This is total number of location. Total number of research is 71 papers. Multiple location were included.

된 증재 연구 또는 실험연구는 28편(33.7%), 환자 사례 연구 2편(2.4%), 질적 연구 5편(6.0%), 문헌 고찰 연구 5편(6.0%), 방법론적 연구 3편(3.6%)의 순이었다.

이상 출판연도, 연구 설계, 학술 분야를 하나의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3)

3. 연구 주제 및 내용 분석

각 논문의 주제어와 검토한 본문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주제를 분류하였다.

우선 상위 범주로 크게 산후관리 특성, 산후관리 증재 2가지로 구분하였다. 첫째, 산후관리 특성은 산후관리 경험, 영향 요인, 육체적, 정신적 건강, 개념 분석, 산후관리 인식, 모유수유에 대한 부분으로 산후관리에 대한 기본적인 특성과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한 연구들을 묶어 구성하였다. 둘째, 산후관리 증재는 간호영역, 한의학 영역, 모유수유 교육, 일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정신 건강관리 서비스, 육체적 건강관리 서비스, 개발 영역으로 구성하였는데 개입되는 증재가 있는 연구들을 분류하되 개발

영역의 경우 개발을 위한 기초조사 연구도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에는 산후조리원에서의 프로그램이나 생활교육 등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한 논문들이 포함되었으며 간호 증재 영역은 ‘간호’ 라는 단어를 명시한 프로그램의 경우로 구분하였다. (Table 4)

분류 결과 산후관리 특성 영역은 37편(44.6%), 산후관리 증재 영역은 46편(55.4%)이었으며 산후관리의 특성 영역에서는 37편 중 정신 건강과 관련한 특성으로 구분한 논문이 15편으로 가장 많았고 요인을 분석한 논문이 9편으로 뒤를 이었다. 산후관리 증재 영역에서는 46편 중 한의학적 증재가 있었던 논문이 1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일반적인 건강관리 서비스 영역으로 분류한 논문이 8편이었다.

각 범주화 한 주제 영역에 대하여 주요 주제어를 정리하여 도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Table 4)

이러한 분류를 토대로 해당 연구에 나온 변수들을 정리하였다. 첫 번째 분류인 특성에서는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한 변수들을 정리하였고 두 번째 분류에서는 증재 변수들을 정리하였다. (Table 5)

Table 3. Published Year, Population and Design of Studies Related to Postpartum Healthcare

Category	Characteristics	Sub total	Academic Field				Total (%)
			Nursing	Korean medicine	Preventive medicine	Etc.	
Published year	1997-2000	8	8	0	0	0	8 (9.6%)
	2001-2005	18	10	6	1	1	18 (21.7%)
	2006-2010	17	6	8	2	1	17 (20.5%)
	2011-2015	24	14	6	1	3	24 (28.9%)
	2016-2019	16	5	6	2	3	16 (19.3%)
	Sub total	83	43	26	6	8	83
Study design	Survey	27	13	9	3	2	40(48.2%)
	Correlation survey	12	7	3	2	0	
	Exploratory survey	1	1	0	0	0	
	Case study	2	0	2	0	0	2 (2.4%)
	Interventional/Experimental study	28	14	10	1	3	28 (33.7%)
	Qualitative study	5	4	0	0	1	5 (6.0%)
	Methodological study	3	2	0	0	1	3 (3.6%)
	Literature review	5	2	2	0	1	5 (6.0%)
Sub total	83	43	26	6	8	83	

또한 주제별로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총괄하는 연구 지도를 구성하였으며 주제별로 연구 설계, 출판연도, 모집 장소를 정리한 것이다. (Table 6)

고 찰

본 연구는 산욕기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를 스코핑 고찰방법으로 분석한 문헌고찰 연구로 스코핑 고찰은 연구 영역에서 관련 개념의 연구경향과 의미 있는 연구주제를 도출하기 위한 시도로써 다양한 유형의 연구를 모두 포함시키며 해당 영역의 기반이 되는 핵심 개념과 이용 가능한 근거의 주요 자원 및 그 유형을 빠르게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산욕기 산모들의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된 국내 학술지 연구현황

파악 및 향후 연구 및 정책 방향 제시를 위해 스코핑 고찰을 하였으며, Arskey와 O'Malley의 framework에서 제시한 5단계를 따라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7,8)}

스코핑 고찰에서는 시간, 위치, 학문 분야적 기원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여 지도화하는데 사용된다.¹⁰⁾ 이를 위해 출판연도, 학술 분야, 연구 설계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을 분석할 때 지역적인 부분이 파악될 수 있도록 모집 지역 및 장소에 대한 부분을 함께 분석하게 되었다.

출판연도별로 본 결과 1997년부터 매년 1편 이상 발표된 것을 확인한 것으로 보아 꾸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5년 단위로는 2011-2015년이 24편으로 가장 많이 발표되었다.

학술 분야로는 간호학 분야에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다음으로 한의학 분야가 많았다. 반면 산

Table 4. Classification of Study Topics

Top category(n)	Subcategory(n)	Main keywords
Postpartum care characteristic (37)	Postpartum experience(4)	Personal care method, Married immigrant women
	Influencing factors(9)	Postpartum care performance, Functional status, Adaptation, Postpartum care service utilization, Postpartum Care Facility, Postpartum Caretaker
	Mental health(15)	Fatigue, Postpartum depression, Quality of life, sleep, Postpartum Stress, Children Stress, Sasang constitution, Preparation, Self-efficacy, Body image, Social support
	Physical health (3)	Postpartum symptoms, Sanhupung
	Concept analysis (1)	Sanhujori, Tool
	Postpartum care recognition(3)	Postpartum care performance, Postpartum period, Weight gain
	Breast feeding (2)	Community health service, Infant formula, Rooming-in care, Self-efficacy
Postpartum care intervention (46)	Nursing(2)	Home Health Care, Health education
	Korean medicine(19)	Postpartum symptoms-Sanhupung, Postpartum depression, Postpartum weight retention, Edema, Sweating, Anemia, Duration of lochia, Blood Stasis, Low back pain, Herbal medicine, Diet therapies, Breast-feeding, Satisfaction and recognition
	Breast feeding education (2)	Education, Perception, Type
	General healthcare service (8)	Postpartum Care Facility, Postpartum Caretake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Postpartum knowledge, Postpartum behavior, Postpartum recovery, Quality of life, Immigration
	Mental healthcare service (5)	Postpartum Depression, Ear acupressure, Exercise, Foot Massage, Music therapy
Development (6)	Physical healthcare service (4)	Body composition, prevent Incontinence, Exercise, Physical fitness, Postpartum weight retention
	Development (6)	Protocol, Evaluation, Nursing needs

부인과학 분야는 1편으로 적은 수가 발표되었다. 이는 본 논문이 산후에 시행하는 건강관리의 측면에서 탐색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인 특정 질환명으로 언급하여 발표된 논문들은 제외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한의학에서는 산후풍이라는 개념이 있어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해왔고 2001년 이후로 매 5년 마다 6편 이상 발표되어 온 것으로 보아 산후관리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른 의학 분야에서는 관리적 측면의 접근이 활발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앞서 임

Table 5. Variables Related to Postpartum Healthcare

Category	Variables (n)	
Postpartum care characteristi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Satisfaction(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partum care -Maternal - Korean medicine treatment ▶ Postpartum care importance(2) ▶ Postpartum functional status(1) ▶ Postpartum health status (9) ▶ Health promoting behaviors(1) ▶ Postpartum care performance(1) ▶ Postpartum care precautions(1) ▶ Postpartum adaptation(1) ▶ Emotional status (2) ▶ Quality of life(3) ▶ Social support(4) ▶ Family function ▶ Self-efficacy(2) ▶ Parenting stress(4) ▶ Postpartum fatigue(7) ▶ Postpartum depression(15) ▶ Sleep quality(3) ▶ Infant characteristics(2) ▶ Maternal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ole(1) - Attachment(1) - Identity(1) ▶ Breast-feed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ducation(1) - Acting(1) - Advantages -Method(6) - Decision time/Motivation(1) - Difficulty(2) ▶ Sasang Constitution Diagnosis(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neral characteristics(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Age, Education, Religion, Job, Income, Family composition, Period of Marriage, Residence, Marriage satisfaction, Living member) ▶ Delivery & Infant characteristics(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Obstetric history, Pregnancy planning, Delivery method, Gestation period, Assisted reproductive, Postpartum period, Infant gender, Infant health status) ▶ Weight change(1) ▶ Postpartum care method(3) ▶ Postpartum care experience(3) ▶ Postpartum Complications(2) ▶ Use of Postpartum care center(2) ▶ Prenatal nursing agency(1) ▶ Postpartum recognition(2) ▶ Postpartum difficulty(1) ▶ Prenatal education(3) ▶ Having postpartum helper(2) ▶ Parenting helper(4) ▶ Use of Breast-feeding facility(1) ▶ Period of postpartum care(2) ▶ Herbal medicine experience(1) ▶ Reason for use of postpartum care center(1) ▶ Reason for using of Korean medicine hospital(1)
	Postpartum care interven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ostpartum care nursing education(2) ▷ Breast-feeding education(2) ▷ Postpartum care program(3) ▷ Postpartum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 ▷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1) ▷ Use of Postpartum Care Facility(4) ▷ Postpartum care application(1) ▷ Abdominal massage(1) ▷ Foot massage(1) ▷ Incontinence Prevention Program(1) ▷ Postpartum exercise program(2) ▷ Functional food(1) ▷ Music therapy(1) ▷ Ear acupressure(1) ▷ Diet therapies(1) ▷ Korean medicine postpartum program(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Herbal medicine - Saenghwa-tang-gamibang(8) - Gungguijohyeol-eum-gamibang - Omibaekchul-san - Bojungikgi-tang ▷ Acupuncture ▷Cupping ▷ Moxibustion ▷Physical therapy ▷ Pharmacopuncture

Table 6. Research Map by Topics

Top category(n)	Subcategory(n)	Study design(n)	Published year(n)	Allocated location(n)	
Postpartum care characteristic (37)	Postpartum experience(4)	Qualitative study(4)	1998, 2014, 2015, 2016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1), Korean language classes for immigrant women(1), Unspecific(2)	
	Influencing factors(9)	Descriptive survey(3) Correlation survey(5) Methodological study (1)	1998(2), 1999, 2005, 2007, 2013, 2017(2), 2019	Hospital(7), Public Health Center(2), Multicultural Family Support Center(2), Midwifery center(1), Unspecific(2)	
	Mental health(15)	Descriptive survey(9) Correlation survey(5) Case-control study(1)	2000, 2001(2), 2005, 2007, 2008, 2009(2), 2010, 2011, 2013(2), 2014, 2015, 2018	Hospital (13), Public Health Center(1), Postpartum care center(1), Breast-feeding management facility(1), Korean medicine hospital(2)	
	Physical health (3)	Descriptive survey(2) Retrospective review(1)	2001, 2017, 2018	Hospital(2), Korean medicine hospital(1)	
	Concept analysis (1)	Methodological study(1)	2001	N/A(1)	
	Postpartum care recognition(3)	Descriptive survey(3)	2001(2), 2008(1)	Hospital(1), Public Health Center(1), Korean medicine postpartum care center(1),	
	Breast feeding (2)	Descriptive survey(2)	2010, 2011	Hospital(1), Korean medicine hospital(1), Breast-feeding management facility(1), Postpartum care center(1)	
	Nursing(2)	Single-group before-and-after study(1), Quasi-experimental trial(1)	2000, 2014	Hospital(1), Unspecific(1)	
	Korean medicine(19)	Retrospective review (4)			
		Prospective observation study(1)			
Single-group before-and-after study(3)			2001, 2002(2), 2007, 2008, 2009, 2010(3), 2011, 2012, 2013(3), 2015, 2017, 2018(2), 2019	Korean medicine hospital(14), Korean Medicine Postpartum care center(3), N/A(2)	
Controlled before-and-after study(3)					
Literature review(2)					
Postpartum care intervention (46)	Descriptive survey(3) Correlation survey(1) Case study(2)				
	Breast feeding education (2)	Quasi-experimental trial(2)	2011, 2012	Hospital(1), Postpartum care center(1)	
	General healthcare service (8)	Quasi-experimental trial(3), Descriptive survey(2), Correlation survey(1) Literature review(1) Qualitative study(1)	2002, 2006, 2008, 2013(2), 2015, 2017(2)	Hospital(3), Postpartum care center(4), Internet(1), Unspecific(1)	
	Mental healthcare service (5)	Quasi-experimental trial(4) Literature review(1)	2019(2), 2011, 2015, 2004	Hospital(2), Postpartum care center(2), N/A(1)	
	Physical healthcare service (4)	Quasi-experimental trial(2) Controlled before-and-after study(2)	2003, 2004, 2009, 2011	Hospital(3), Postpartum care center(2)	
	Development (6)	Methodological study (1) Descriptive survey(3) Exploratory survey(1) Literature review(1)	1997, 1998, 2001(2), 2003, 2018	Hospital(4), N/A(2)	

산부의 산전관리에 비해 산후관리에 대한 대처가 미비한 것²⁾과도 연관되는데, 산후에 발생하는 질환으로 진단받은 후에야 의학적인 처치가 이루어지므로 예방적 차원으로 산후관리를 접근하는 인식과 정책이 부족하다고 볼 수 있겠다.

연구 대상에서는 출산 이후의 기간에 따라 모집군을 달리 하는 연구가 37편 있었는데, 이 중 17편이 4주 이하의 기간으로 이는 한방병원이나 병원, 산후조리원에서 대상을 모집할 때 통상적으로 출산 후 2주 또는 4주간 입원 또는 입소를 하게 되는 것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선행 연구에서 산후조리 기간과 건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을 때 산후조리 기간이 길수록 더 산모가 건강하다는 결과¹⁰⁻¹²⁾를 토대로 추후 가정방문이나 정기적 의료기관 방문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초산모와 경산모를 분류하는 분만경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상태에 따라 구분하여 모집하기도 하였다. 분만경험에 따른 분류는 초산모일수록 수면의 질이 낮고 교육 요구도가 높다는 것¹³⁻¹⁶⁾을 근거로 분만경험에 따라서 산후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법이 달라야 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대상자를 모집한 지리적 위치에 따른 분류를 살펴 보았을 때 지역을 알 수 없게 암호화 한 논문을 제외하고 지역이 드러난 36회 중 서울·경기권이 16회로 약 45%를 차지하여,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경기권에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짐작할 수 있었다. 또한 대상자 모집 장소로 보았을 때 병·의원 급과 한방병원이 약 6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산후조리원이 약 13%였으며, 뒤이어 보건소, 한방 산후조리원, 모유수유관리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이 있던 것으로 보아 연구 설계 및 출산 후 기간에 따라 모집장소에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연구 설계에서의 결과를 보면 48.2%의 연구가 서술적 조사연구나 상관관계 및 탐색적 조사연구로 산후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탐구하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중재 및 실험적 연구가

33.7%에 해당하였고 그 외에는 문헌적 고찰 및 방법론적 연구, 질적 연구 설계를 이용한 논문들이 있었다. 이는 관련 요인을 먼저 파악한 뒤 산후 건강관리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영역과 중재 프로그램에 대해 개발 및 고찰하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편, 중재 연구 중 발표한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지속적인 시행과 평가가 이루어진 후속 연구들은 부재하였는데, 추후 다양한 중재 프로그램의 개발과 그에 대한 지속적인 진행과 평가가 반복해서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고 재현성 있는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 주제별로 분류하였을 때 관련 요인을 파악하고자 한 산후관리 특성에 대한 부분과 산후관리 중재에 대한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산후관리 특성에서는 정신적 피로, 산후 우울감, 양육 스트레스 등 정신적 건강과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려는 연구들이 37편 중 15편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산욕기 산모들의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정신적 건강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이 적극적으로 개발 및 실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정신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나이가 적을수록, 출산경력이 적을수록 산후 우울과 관련이 된다는 논문이 있었으며¹⁷⁾ 수면시간 등 수면의 질과의 상관성을 분석한 논문도 있었다.^{13,18)} 가족들의 지지^{19,20)}, 모성 정체감과 모아 애착 향상도 중요하다고 하였다.²¹⁾

산후관리 중재에서는 46편 중 한의학적 접근의 중재 방법이 19편으로 산후관리에 있어 한의학적 요법을 많이 활용하고자 하며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의 중재 프로그램으로는 산후 회복을 돕는 한약 투여, 침 치료, 부항 요법, 약침 치료 등을 활용하였고 한방병원에 산후조리원이 함께 있는 경우에는 마사지, 산모 및 태아 건강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이 같이 진행되기도 하였다.²²⁾ 한약 처방을 명시한 경우 생화탕가미방(生化湯加味方)이 8편²²⁻²⁹⁾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에 궁

귀조혈음가미방(芎歸調血飲加味方)^{30,31}, 오미백출산(五味白朮散)³², 보중익기탕(補中益氣湯)³³ 등이 있었다. 한의 중재 프로그램을 시행하였을 때 관절통증, 오로, 부종, 피로감, 다한 증상을 위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고 우울감 등에도 호전을 보였다는 논문도 있었다. 그 외의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산욕기 생활과 위생에 관련한 교육이나 양육 교육³⁴⁻³⁶, 간호방법 교육^{37,38}, 모유수유 교육^{39,40} 등 교육에 대한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그 외에 마사지^{41,42}, 운동 프로그램⁴³⁻⁴⁵, 이압요법⁴⁶, 음악 치료⁴⁷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있었다. 중재 프로그램 중 정신적 건강에 대한 지표를 활용한 내용으로는 이압요법, 발 반사 마사지요법, 음악치료 등이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을 총괄하여 연구 지도를 구성한 것을 토대로(Table6) 산후관리 특성과 중재라는 두 가지 영역을 비교하면, 산후관리 특성 영역에서는 조사연구가 가장 많은 반면 산후관리 중재 영역에서는 실험 및 중재 연구가 가장 많아 산후관리 중재 영역은 프로그램에 대한 검증 차원의 연구가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모집 장소에서는 두 영역 모두 병·의원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산후관리 특성 영역은 장소의 종류가 다양하다는 특징이 있었고, 산후관리 중재 영역에서의 모집 장소는 한방병원이 병·의원과 동일한 비중으로 많았다. 이는 산후관리 중재 프로그램에 한의학적 요법이 가장 많이 차지한 결과로 인한 것으로 한의 산후관리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방병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출판연도는 두 영역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간의 흐름에 따라 연구주체의 변화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산후관리 중재 영역에서 질적인 연구방법을 이용하여 산모들의 경험과 프로그램의 효용성을 파악한 논문은 없어 질적인 측면의 연구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었다. 추후 한의학 산후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정리하면, 스코핑 고찰 결과 향후 다음과 같은 점들을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산모들에게 정신적 건강에 대한 필요가 높은 것에 비해 한방 처치를 활용하여 정신적 관리의 측면으로 접근한 내용이 드물기 때문에 이를 토대로 향후 한의학적 산후 중재 프로그램에서 정신적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더욱 면밀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우울감에 효과를 보고한 이압요법, 마사지 요법 등을 이침 치료 및 근막 추나요법 등으로 활용하여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추가로 교육에 대한 산모들의 요구에 따라 프로그램 내에 책자를 활용하는 등의 교육이 겸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둘째, 한의학적 산후관리 중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산모들이 받은 경험과 효용성을 파악하고 개선점을 탐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후속연구로 산후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질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셋째, 지리적으로 인구 밀집지역인 서울·경기 지역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는데, 산후관리가 미흡하다고 보이는 지방과 낙후지역에 거주하는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정책 및 지원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산욕기 초기 산모를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가 많았는데, 추후 가정방문이나 정기적 의료기관 방문 등 지속적인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논문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산욕기 산모들을 대상으로 예방적 차원에서 전반적인 산후 건강관리 및 산후회복에 대한 논문만을 자료로 삼았기에 산후에 발생한 특정 질환들에 대한 논문은 분석의 대상으로 삼지 못하였다. 또한, 산욕기 산모가 아닌 대상은 배제되었기에 신체형장애⁴⁸, 폐경기 질환⁴⁹ 또는 다른 관절염 질환⁵⁰ 등 다른 대상군을 모집하여 산후관리와의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논문들이 배제되었는데 추후 이러한 논문들을 통해 산후 건강관리가 출산 경험이 있는 여성들의 삶의 질과 이후의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추가적

으로 뒷받침할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연구 대상을 국내 논문으로만 한정하여 국외 논문들의 동향은 파악하지 못하였다. 이는 먼저 현 시점에서 국내 산모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내 산후 건강관리 연구동향을 살펴보고 이를 국내 모자보건 사업에 반영하고자 함이었는데, 후속 연구로 연구 대상을 국외로 확대하여 다른 나라의 현황을 파악하여 국내 산후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장점 및 제한점을 비교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본 논문은 체계적 문헌 고찰이 아니기에 질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구들이 얼마나 유효성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전체 영역을 포괄적으로 살펴보고 현재까지 연구가 되지 않은 부분이 무엇인지, 연구 흐름에 어떤 변화 과정이 있었는지, 앞으로 필요한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기에 이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여겨진다. 추후 후속연구로 중재 프로그램들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을 통해 데이터를 정리하여 탐구하고, 질 평가를 통해 실질적으로 효과가 높은 프로그램들에 대한 탐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로 산욕기 산모들이 필요하고 원하는 프로그램에 대하여 실제 산모들을 대상으로 한 질적 연구나 조사연구 등의 형태로 연속성 있게 연구가 이어져 향후 공공사업이나 모자보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결론

본 연구에서는 스코핑 고찰 방법을 사용하여 국내 연구재단 등재 학술지에 발표된 ‘산욕기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관련 연구의 동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산후 건강관리와 관련한 국내 연구는 1997년 이후 꾸준히 이루어져 왔고, 특히 간호학과 한의학 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2. 지역적으로는 서울과 경기권의 연구가 많았고,

수도권 외 지방과 낙후지역의 산모관리에 관한 연구는 부족했다.

3. 연구 방법론적으로는 설문을 기반으로 한 조사 연구가 가장 많았고, 중재 및 실험 논문이 많이 진행된 바 있으나 산후관리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산모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볼 질적 연구 영역은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

4. 연구 주제로는 크게 산후관리 특성, 산후관리 중재 2가지 범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산후관리 특성 영역에서는 산모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내용이 가장 많아 정신적 건강에 대한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산후관리 중재 영역에서는 한의학적 중재 방법을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효과적인 중재 방법으로 고려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5. 향후 한의학적 산후 중재 프로그램에서 정신건강 관리에 관한 프로그램 개발 및 효과 평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또한 질적 연구를 통해 산모들의 의견을 심도 있게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1st ed. Seoul:Euseongdang. 2012:691-2, 765-70, 798.
2.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renatal and Postnatal Car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2016;236(0):37-50.
3. Lee TK. A Literary Study of the Postpartum Care.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1;14(1):209-28.
4. The society of Korean medicine obstetrics and gynecology. *Oriental obstetrics & gynecology*. 3rd ed. Seoul:Euseongdang. 2016:765-7.
5. Bae GM, Lee IS. The Study to Investigate the

- Recognition on Postpartum Symptom among Korean, Korean resident in America and American.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10;23(2):131-44.
6.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2017' Casebook on Maternity Support Policy of Korea Local Governments. Seoul: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2017;332, 334, 337, 344-5.
 7. Arksey H, O'malley L. Scoping studies: towards a methodological framework. *Int J Soc Res Methodol*, 2005;8(1):19-32.
 8. Thomas A, Lubarsky S, Durning SJ, Young ME. Knowledge syntheses in medical education: demystifying scoping reviews. *Acad Med*. 2017;92(2), 161-166.
 9. Zaza S, Wright-De Agüero LK, Briss PA, Truman BI, Hopkins DP, Hennessy MH, et al. Data collection instrument and procedure for systematic reviews in the Guide to Community Preventive Services. *Am J Prev Med*. 2000;18(1):44-74.
 10. Ahn SH.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Korean Traditional Postpartum Care Performance and Postpartum Health Status. *J Korean Acad Nurs*. 2005;35(1):37-46.
 11. Yoo EK. A Study on functional Status after Childbirth under the Sanhujori.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9;5(3):410-419.
 12. Kim TK, Yoo EK. A Correlational Study on the level of Importance & performance of postpartal Care and its Relationship with Women's Health Statu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98;4(2):145-61.
 13. Cho EJ. Subjective Sleep Qualit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During the L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2):108-20.
 14. Song JE. Factors Related to the Childcare Stress among Primiparous Women who delivered at Women's Health Hospital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9;13(2):158-70.
 15. Lee JY, Kim 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ostpartum Care Mobile Application for First-time 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7;23(3):210-20.
 16. Koh HJ, Lim KH. A Comparison of the Educational Needs of the Mothers' for the Infant Care Between Primipara and Multipara. *Child Health Nurs Res*. 2002;8(2):217-28.
 17. Kim LH, Kwon BY, Kim SY. A Clinical Study on the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f Postpartum blues and depression.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1;12(2):27-35.
 18. Kim ME, Hur MH. Sleep Quality, Fatigue,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Mother at Six Months after Deliver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4):266-76.
 19. Jung MH, Kim J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among Prenatal Emotional Status, Preparation for Delivery, Postpartum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Blue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5;11(1):38-45.
 20. Lee JW, Eo YS, Moon EH. Effects of Self Efficacy, Body Image and Family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in Early Postpartum Mot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6):4 011-20.
 21. Lee SO, Yeo JH, Ahn SH, Lee HS, Yang HJ, Han MJ. Postpartum depressive score and related factors pre-and post-deliver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0;16(1):29-36.

22. Bak JY, Park JK, Park KY, Kim TH. A Study about the Satisfaction of Oriental Medical Postpartum Care. *The Journal of Oriental Gynecology*. 2009;22(4):173-86.
23. Choi SW, Kim JY. Effect of Oriental Postpartum Management on the Hematology and Blood Chemistry in Puerperium Maternity. *J Korean Oriental Med*. 2001;22(4):121-30.
24. Moon SH, Kim JY. The Effect of the Oriental Postpartum Care in Hemoglobin Changes of Maternity. *J Korean Oriental Med*. 2002;22(4):112-19.
25. Park SM, Yoo DY. A Clinical Study on Three Cases of Anemia in Postpartum Women Treated by Gamisaengwha-tang with Deer Antler. *J Korean Obstet Gynecol*. 2011;24(3):212-21.
26. Lee EH. Short-term Clinical Observation of the Early Postpartum Low Back Pain in the Korean Medical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2;25(2):174-84.
27. Park KY, Lee AY, Ban JH, Park JK, Lee EH. Effects of Herbal Medicine on Breast-feeding - Analysis of Marker Substances in Saenghwa-tang by HPLC and LC/MS/MS -,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6(4):48-65.
28. Kim PW, Kim AN, Jang HC, LEE EH.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on Symptoms of the Postpartum Women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during Six Weeks after Childbirth. *J Korean Obstet Gynecol*. 2017;30(4):111-34.
29. Lee AY, Park GY, Lee EH. Changes of Depression and Fatigue Leve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Early Postpartum Women.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6(2): 33-45.
30. Hwang YS, Park NC, Lee JW, Yang HR, Park SH, Hwang DS, et al. Analysis on Outpatients with Postpartum Disease at the Korean Gynecology Clinic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8;31(3):61-78.
31. Choi SY, Kim CW, Kim NH, Park KS, Hwang DS, Lee JM, et al. A Study on the Changes of Early Puerperium Symptoms and Blood Stasis Index of Women Taking Gungguijohyeol-eum-gamibang. *J Korean Obstet Gynecol*. 2018;31(1):1-19.
32. Kim ES, Lee JM, Lee CH, Cho JH, Jang JB, Lee KS. A 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Induced by Inadequate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7;20(3):238-45.
33. Kim GH, Lee JH, Cho HB, Choi CM, Kim SB. A Study on the Effect of Omibaekchul-san on Postpartum Edema-Comparison with Saenghwa-tang. *J Korean Obstet Gynecol*. 2015;28(2):91-108.
34. Kim JH, Park MK, Park MH. Effects of a Postpartum Care Program for Postpartum Women on Postpartum Activity and Postpartum Discomfort in Primiparous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8;14(1):36-43.
35. Park MK, Lee YS. Effects of a Postpartum Care Program on the Knowledge and Behavior of Postpartum Recovery in Primiparous Wom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6;11(2):127-36.
36. Song JE, Ahn JA.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in Korea: Systematic Review.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3;19(3):129-41.
37. Bang KS, Huh BY, Kwon MK. The Effect of

- a Postpartum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Immigrant Mothers. *Child Health Nurs Res.* 2014;20(1):11-19.
38. Shin HS, Kim SH, Kwon SH.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rimiparas' Postpartal car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0;6(1): 34-45.
39. Kim JK, Choi HM, Ryu EJ. Postnatal Breast-Feeding Knowledge, Techniques and Rates of First-Time Mothers Depending on a Prenatal Breast-Feeding Education Method.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17(1):90-99.
40. Yun SE, LEE HK. Effects of Breast-feeding Adaptation, Attitude and Practice of Primipara Depending on Method of Postpartum Breast-feeding Educ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2;18(2):75-84.
41. Kim DH, Ahn HS. The Effect of Abdominal Massage Six Months Postpartum on Body Compos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011;17(6):1048-58.
42. Choi MS, Lee EJ. Effects of Foot-Reflexology Massage on Fatigue, Stress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Postpartum Women. *J Korean Acad Nurs.* 2015;45(4):587-94.
43. Lee SO. Effects of Postpartum Exercise on Pelvic Muscle Contracti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of the Postpartum Mother.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4;10(3): 244-51.
44. Lee SO, Kim MO, Ahn SH, Cho YR. Effects of Postpartum Exercise on Mental Health.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4;10(1): 15-22.
45. Jeong NO. Effects of an Incontinence Prevention Program on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3):177-85.
46. Kim SH, Sung KM. The Effects of Auricular Acupressure on Depression and Fatigue among Early Postpartum Mothers. *J. East-West Nurs. Res.* 2019;25(2):91-102.
47. Yun SE, Lee SO, Lee HK.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ostpartum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of Puerperal Women.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2011;14(2):45-54.
48. Park YC, Song JY, Choe BK, Park JH, Oh DJ, Lim OG, et al. Somatization and Poor Adherence to 'Doing the Month' Practices in Korean Women with Somatoform Disorders. *Korean J Psychosomatic Med.* 2008;16(2): 103-11.
49. Kim MJ, Kang KJ. Effects of Sanhujori and Menopausal Adaptation on Health-related QOL in Middle-aged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1):62-71.
50. Yoo EK, Lee SH, Kim MH.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xperience of Sanhujori, the Traditional Postpartal Care in Korea and Present Health Status of Chronic Arthritis Female Patient.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8;4(2):217-30.

ORCID

이도은 <https://orcid.org/0000-0002-0342-607X>

박한송 <https://orcid.org/0000-0002-0477-8982>

진준수 <https://orcid.org/0000-0003-3161-0162>

민백기 <https://orcid.org/0000-0003-2331-2536>

서효원 <https://orcid.org/0000-0003-1745-1628>

윤인애 <https://orcid.org/0000-0002-1463-2178>

서주희 <https://orcid.org/0000-0001-7473-9412>

Appendix1 : List of included papers.

1. Shin HS, Lee KH. The Lived Experiences of Postnatal Women in Che-Ju island.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8;4(2):271-85.
2. Lim HS, The Experience of Transition in Pregnancy and Childbirth among the Married Immigrant Women in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3):243-55.
3. Kim SH, Health Care Experiences of Vietnamese Marriage Immigrant Women during Pregnancy, Childbirth, and Postpartum Period in Korea.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2015;29(2):325-43.
4. Song JE, Park SM, Roh EH. The Postnatal Care Experiences among First Time Chinese Immigrant Mothers Living in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6;22(1):48-60.
5. Kim TK, Yoo EK. A Correlational Study on the level of Importance & performance of postpartal Care and its Relationship with Women's Health Status.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8;4(2):145-61.
6. Jo L, Choi SH. A Study on Factors Influencing the Health Promoting Behaviors in Postpartal Women.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1998;5(2):353-61.
7. Yoo EK. A Study on functional Status after Childbirth under the Sanhujori. *Korean J Women Health Nurs.* 1999;5(3):410-419.
8. Ahn SH. Canonical Correlation between Korean Traditional Postpartum Care Performance and Postpartum Health Status. *J Korean Acad Nurs.* 2005;35(1):37-46.
9. Kim JI. Related factors to postpartum care performance in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7;13(2):98-104.
10. Kim KW, Jeong GH. Development of a Scale to Assess Immigrant Women's Needs for Pregnancy and Postpartum Adapt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19(4):242-53.
11. Jung YS, Kwon YD. Factors Affecting the Use of Postpartum Care Services. *The Korean Journal of Health Service Management.* 2017;11(1): 143-58.
12. Sakong J, Park DH. An Analysis on the Determinants and Equity of the Postpartum Care Service Utilization.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2017;27(4):304-14.
13. Jeong GH, Kim KW, Baik SH. Comparison of Needs for Pregnancy and Postpartum Adaptation of Chinese Immigrant Women and Vietnamese Immigrant Women in South Korea.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9;25(1): 19-30.
14. Choi ES, Oh JA. A Study on the Factors related to Postpartum Depression in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0;6(3):358-71.
15. Kim SJ, Jeong GH, Kim EH. Mothers Perception of Fatigue in Postpartum Peri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1;7(4): 461-72.
16. Kim LH, Kwon BY, Kim SY. A Clinical Study on the Social Environmental Factors of Postpartum blues and depression. *J of Oriental Neuropsychiatry.* 2001;12(2):27-35.
17. Kim JW, Kim JH, Kim BJ, Eun DS, Kim H, Kim JE. et al. Psychosocial and Obstetric Factors associated with Postpartum Depressive Symptoms. *Korean journal of obstetrics and gynecology.* 2004;47(10):1865-71.
18. Jung MH, Kim JI. A Study on the Relationship

- among Prenatal Emotional Status, Preparation for Delivery, Postpartum Social Support and Postpartum Blue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5;11(1):38-45.
19. Song JE. Predictors of Postpartum Fatigue Between Early and Late Postpartum Period in Parturient Women - Divided by 3/4 Weeks of Postpartum Period -.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7;13(4):299-309.
 20. Cho EJ. Subjective Sleep Quality in Depressed and Non-Depressed Mothers During the Late Postpartum Period.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2):108-20.
 21. Song JE. Factors Related to the Childcare Stress among Primiparous Women who delivered at Women's Health Hospital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9;13(2):158-70.
 22. Lee SO, Yeo JH, Ahn SH, Lee HS, Yang HJ, Han MJ. Postpartum depressive score and related factors pre-and post-deliver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0;16(1):29-36.
 23. Choi SY, Gu HJ, Ryu EJ. Effects of Fatigue and Postpartum Depression on Maternal Perceived Quality of Life (MAPP-QOL) in Early Postpartum 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2):118-25.
 24. Yeo JH, Chun NM. Influence of Childbirth Experience and Postpartum Depression on Quality of Life in Women after Birth. *J Korean Acad Nurs.* 2013;43(1):11-19.
 25. Lee AY, Park GY, Lee EH. Changes of Depression and Fatigue Level According to Sasang Constitution in Early Postpartum Women.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6(2): 33-45.
 26. Kim ME, Hur MH. Sleep Quality, Fatigue, and Postpartum Depression of Mother at Six Months after Delivery.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4;20(4):266-76.
 27. Lee JW, Eo YS, Moon EH. Effects of Self Efficacy, Body Image and Family Support on Postpartum Depression in Early Postpartum Mother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5;16(6): 4011-20.
 28. Kim JS. The Effect of Parenting Stress and Depression and Fatigue on Quality of life in Early Postpartum Mother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2018;8(6):1-7.
 29. Uom ES, Lee DN, Lim EM. Clinical Investigation for Various Postpartum Symptoms.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1):365-379.
 30. Koo JS, Lee YJ, Seo BI. Clinical Report of Various Postpartum Symptoms. *J Korean Med.* 2017;38(1):112-24.
 31. Hwang YS, Park NC, Lee JW, Yang HR, Park SH, Hwang DS, et al. Analysis on Outpatients with Postpartum Disease at the Korean Gynecology Clinic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8;31(3):61-78.
 32. Park HS, Jeong ES, Lee SO, Kim YM, Seo YS, Choi SY. Concept Analysis of Sanhujori and Tool Development.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7;38(1):112-24.
 33. Oh JS, Lee IJ, Cho JH, Jang JB, Lee KS. A Study on the cognition of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3):146-55.
 34. Heo JW, Kim SR. A Study on the cognition and Relities of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1;14(1):409-423.
 35. Kang JG, Lee IS, Cho HS. A Study on

- Awareness of Postnatal Care and San Huo Pung. *J Korean Obstet Gynecol.* 2008;21(3):143-66.
36. Jung JH, Kim MK, Park JS, Shin KS, Park EJ. A Survey on Understanding and Actual Condition of Breast-feeding of Woman at Oriental Medicine Hospital Postpartum Care Center. *J Korean Oriental Pediatrics,* 2010;24(2):13-21.
 37. Kim MY, Kim SH, Lee JY. Types of Breastfeeding and its Predictors of Mothers in Twenty-four Months after Birth.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1;17(1):21-30.
 38. Shin HS, Kim SH, Kwon SH. The Effects of Education on Primiparas' Postpartal care.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0;6(1):34-45.
 39. Bang KS, Huh BY, Kwon MK. The Effect of a Postpartum Nursing Intervention Program for Immigrant Mothers. *Child Health Nurs Res.* 2014;20(1):11-19.
 40. Choi SW, Kim JY. Effect of Oriental Postpartum Management on the Hematology and Blood Chemistry in Puerperium Maternity. *J Korean Oriental Med.* 2001;22(4):121-30.
 41. Moon SH, Kim JY. The Effect of the Oriental Postpartum Care in Hemoglobin Changes of Maternity. *J Korean Oriental Med.* 2002;22(4):112-19.
 42. Choi EM, Cho JH, Jang JB, Lee KS. Examination of postpartum symptoms change on Postpartum admission room. *J Korean Oriental Med.* 2002;15(3):139-50.
 43. Kim ES, Lee JM, Lee CH, Cho JH, Jang JB, Lee KS. A Case Report of Postpartum Disease Induced by Inadequate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7;20(3):238-45.
 44. Song YH, Kim TH. A Study on the Character of Postpartum Women by Factor AA in 7-Zone-Diagnostic System. *J Korean Obstet Gynecol.* 2008;21(3):132-42.
 45. Bak JY, Park JK, Park KY, Kim TH. A Study about the Satisfaction of Oriental Medical Postpartum Care. *J Korean Obstet Gynecol.* 2009;22(4):173-86.
 46. Park JK, Meang YS, Lee SB, Kim DI. A Clinical Study of Postpartum Care in Oriental-Western Cooperative Medicine and Survey of Patients' Satisfaction.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1):108-23.
 47. Jang SR, Park YS, Kim DC. The Clinical Analysis of 104 Sanhupung Patients that visited at an Oriental Medicine Hospital. *J Korean Oriental Med.* 2010;23(3):194-204.
 48. ark JK, Kim DI. A Study about Change of Body Weight and Body Composition during Early Puerperium. *J Korean Obstet Gynecol.* 2010;23(4):95-108.
 49. Park SM, Yoo DY, A Clinical Study on Three Cases of Anemia in Postpartum Women Treated by Gamisaengwha-tang with Deer Antler. *J Korean Obstet Gynecol.* 2011;24(3):212-21.
 50. Lee EH, Short-term Clinical Observation of the Early Postpartum Low Back Pain in the Korean Medical Hospital. *J Korean Obstet Gynecol.* 2012;25(2):174-84.
 51. Kim JE, Kim BS, Ahn JY, Kim YK. The Literature Study of Traditional Diet Therapies on Postpartum Recovery & Lactation in the Joseon Dynasty. *Herbal Formula Science.* 2013;21(2):90-99.
 52. Cho SH, Kim SB. A Study on the Duration

- and Character of Lochia in Women Hospitalized at Korean Medical Postpartum Care Center. *J Korean Orietal Med.* 2013;26(3):59-72.
53. Park KY, Lee AY, Ban JH, Park JK, Lee EH. Effects of Herbal Medicine on Breastfeeding - Analysis of Marker Substances in Saenghwa-tang by HPLC and LC/MS/MS -, *J Korean Obstet Gynecol.* 2013;26(4):48-65.
54. Kim GH, Lee JH, Cho HB, Choi CM, Kim SB. A Study on the Effect of Omibaekchul-san on Postpartum Edema-Comparison with Saenghwa-tang. *J Korean Obstet Gynecol.* 2015;28(2):91-108.
55. Kim PW, Kim AN, Jang HC, LEE EH. A Prospective Observational Study on Symptoms of the Postpartum Women with Korean Medicine Treatment during Six Weeks after Childbirth. *J Korean Obstet Gynecol.* 2017;30(4): 111-34.
56. Choi SY, Kim CW, Kim NH, Park KS, Hwang DS, Lee JM, et al. A Study on the Changes of Early Puerperium Symptoms and Blood Stasis Index of Women Taking Gungguijohyeol-eum-gamibang. *J Korean Obstet Gynecol.* 2018;31(1):1-19.
57. Kim PW, Jung SY, Lee EH. An Analysis of Domestic Researches on the Prescriptions of Korean Herbal Medicine Used during Postpartum Period. *J Korean Orietal Med.* 2018;31(4): 128-46.
58. Noh EJ, Choi SJ, Lee DN, Kim DI. A Study on the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Clinical Changes After Korean Medicine Postpartum Care - A Comparative Study with Pre-Study in 2010 -. *J Korean Obstet Gynecol.* 2019; 32(3):57-72.
59. Yun SE, LEE HK. Effects of Breast-feeding Adaptation, Attitude and Practice of Primipara Depending on Method of Postpartum Breast -feeding Educati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2;18(2):75-84.
60. Kim JK, Choi HM, Ryu EJ. Postnatal Breast -Feeding Knowledge, Techniques and Rates of First-Time Mothers Depending on a Prenatal Breast-Feeding Education Method. *J Korean Acad Soc Nurs Edu.* 2011;17(1):90-99.
61. Park SH, Kim HO. A study on the level of recognition & performance of traditional postpartal care for postpartal women in postpartum care center.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2;8(4):506-20.
62. Park MK, Lee YS. Effects of a Postpartum Care Program on the Knowledge and Behavior of Postpartum Recovery in Primiparous Women.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06;11(2):127-36.
63. Kim JH, Park MK, Park MH. Effects of a Postpartum Care Program for Postpartum Women on Postpartum Activity and Postpartum Discomfort in Primiparous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8;14(1):36-43.
64. Song JE, Ahn JA. Effect of Intervention Programs for Improving Maternal Adaptation in Korea: Systematic Review.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3;19(3):129-41.
65. Kim NM, Choi SY. A Comparative Study of Postpartum Stress, Postpartum Depression, Postpartum Discomfort and Postpartum Activity, Between Women who Used and those Women did not Used Sanhujori Facilities. *J Korean Soc Matern Child Health.* 2013;17(2):184-195.

66. Song JE, Chae HJ, Park BL. Experiences of Sanhujori Facility Use among the First Time Mothers by the Focus Group Interview.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5;21(3):184-96.
67. Choi HK, Jung NO. Factors Influencing Health Promoting Behavior in Postpartum Women at Sanhujoriwo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7;23(2):135-44.
68. Lee JY, Kim HY.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Postpartum Care Mobile Application for First-time Mothers.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17;23(3):210-20.
69. Lee SO, Kim MO, Ahn SH, Cho YR. Effects of Postpartum Exercise on Mental Health.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4;10(1):15-22.
70. Choi MS, Lee EJ. Effects of Foot-Reflexology Massage on Fatigue, Stress and Postpartum Depression in Postpartum Women. *J Korean Acad Nurs.* 2015;45(4):587-94.
71. Yun SE, Lee SO, Lee HK. Effects of Music Therapy on Postpartum Stress and Maternal Attachment of Puerperal Women. *Korean Parent Child Health J.* 2011;14(2):45-54.
72. Kim SH, Sung KM. The Effects of Auricular Acupressure on Depression and Fatigue among Early Postpartum Mothers. *J. East-West Nurs. Res.* 2019;25(2):91-102.
73. Kim MN, Kim YA. The Effects of Postpartum Depression Intervention Programs in Korea: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9;19(3):649-58.
74. Kim SM, Yang JH, Lim JY, Park JW, Kwon SH, Hwangbo S. Effects of Body Weight Control Therapy using Herb Mixture to Pregnant Women on Postpartum Weight. *Korean J. Food & Nutr.* 2003;16(1):54-59.
75. Lee SO. Effects of Postpartum Exercise on Pelvic Muscle Contraction, Body Composition, and Physical Fitness of the Postpartum Mother.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4;10(3):244-51
76. Jeong NO. Effects of an Incontinence Prevention Program on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9;15(3):177-85.
77. Kim DH, Ahn HS. The Effect of Abdominal Massage Six Months Postpartum on Body Composition.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2011;17(6):1048-58.
78. Bang KS. Development of algorithms for the home care of postpartum mothers and infa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Home Health Care Nursing.* 1997;4(1):65-75.
79. Kim MH, Lee SE. A study on the nursing needs of postpartum women during the postpartum period.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1998;12(2):122-135.
80. Kim MH. A preliminary study with the objective of developing a community based postpartum women's follow-up program. *J Korean Public Health Nurs.* 2001;15(1):27-41.
81. Yoo YJ. A study on the home health care needs of postpartum women. *Korean J Women Health Nurs.* 2001;7(4):579-95.
82. Yang MS, Kim IS. A Study on the Self-Confidence and Nursing Needs of Maternal Role Performance in Primiparas during Postpartum Period. 2003;7(1):19-32.
83. Park HS, Kim HY, Kim HS. Development of Standard Protocol-based Healthcare Services

for Optimized Health Management.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Institute of Electrical Engineers. 2018;67(7):969-975.

**Appendix2 : Paper List about Study Topics
(This is reference number by appendix1)**

1. Postpartum care characteristic

- 1) Postpartum experience(4) : 1-4.
- 2) Influencing factors(9) : 5-13.
- 3) Mental health(15) : 14-28.
- 4) Physical health (3) : 29-31.

5) Concept analysis (1) : 32.

6) Postpartum care recognition(3) : 33-35.

7) Breast feeding (2) : 36,37.

2. Postpartum care invention

1) Nursing(2) : 38,39.

2) Korean medicine(19) : 40-58.

3) Breast feeding education (2) : 59,60.

4) General healthcare service (8) : 61-68.

5) Mental healthcare service (5) : 69-73.

6) Physical healthcare service (4) : 74-77.

7) Development (6) : 78-83.